

조선 회화 담긴 선비정신 현대적 조명

미술관 술, '선비의 하루를 거닐다' 전주·해남 순회전 개최

미술관 술이 조선 선비문화의 정신과 한국 전통회화의 아름다움을 현대적으로 조명하는 특별전 '선비의 하루를 거닐다'를 전주와 해남에서 잇따라 개최한다.

미술관 술(관장 서정만)은 K-뮤지엄 지역 순회 전시 및 투어 지원사업인 '뮤지엄 이음'에 선정돼 오는 25일부터 9월 23일까지 전주시 미술관 술에서 특별전을 열고, 이어 9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전남 해남군 해남공룡박물관에서 순회전을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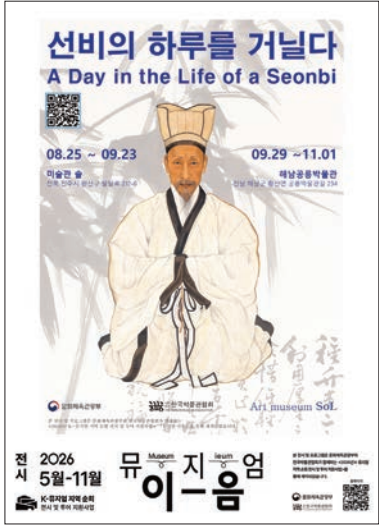
'뮤지엄 이음'은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지역으로 확대하고, 전시와 관광·지역 자원을 연계해 지역 문화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박물관협회가 주관하며, 전국 공모를 통해 선정된 88개 박물관·미술관의 지역 순회전 등을 지원한다.

이번 전시의 주제는 조선시대 선비들이 추구했던 '느림과 사유, 절제와 품격'이다. 조선 회화에 담긴 선비정신을 현대적인 시각으로 재해석해 회화 작품과 공간 연출을 통해 관람객이 마치 선비의 하루를 따라 걷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전시에서는 전북과 전남, 해남 지역을 대표하는 근대부터 현대까지의 작고 작가 작품을 비롯해 김정희, 장승업, 조속, 채응신 등 당대 대표 작가들의 작품도 선보인다. 이를 통해 수도권을 찾지 않고도 지역에서 수준 높은 전통회화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해남 출신 서화가 미방 김익노(1845~1915)와 그의 아들 소방 김흥주(1864~?)의 작품을 해남에서 실제 작품으로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역의



'선비의 하루를 거닐다' 포스터

역사와 문화적 자산을 전시 콘텐츠로 활용해 남종화와 선비문화가 지닌 지역적 특색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는 단순히 작품을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람객이 선비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꽃선비 사진관'에서는 관람객들이 전통 선비복장을 입고 특별하게 꾸며진 '선비의 방'에서 사진을 촬영하며 조선시대 선비의 품격과 여유를 체험할 수 있다.

'선비의 한 해 다짐 담아보기' 프로그램은

전시 작품을 담아 제작한 2027년 달력에 자신의 다짐이나 좌우명을 직접 붓글씨로 써보는 체험이다. 조선 선비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자기 성찰과 마음의 수양을 현대인의 삶 속에서 되새겨볼 수 있도록 마련했다.

전시 작품에 나타난 여백과 절제된 색채, 자연과의 조화로 이번 전시의 주요 감상 포인트다.

미술관 술은 이러한 한국적 미학이 화려함을 추구하는 현대의 시각문화 속에서 마음의 쉼과 내면의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정만 미술관 술 관장은 "여백과 절제, 자연과의 조화로 대표되는 한국적 미학을 국내외 관람객에게 널리 알리고, 서양 중심의 화려한 시각문화와 다른 동양적 사유와 정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전시"라며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선비들의 삶과 정신적 가치를 이해하고 되새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는 지역의 문화자원을 관광과 연계한 체험형 문화콘텐츠로 발전시킨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전주와 해남이 가진 역사·예술 자원에 전통회화를 접목해 지역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나아가 한국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국내외에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 미술관 술 전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람할 수 있으며 전시 기간 휴관일 없이 운영된다. 관람료는 무료다.

해남공룡박물관 전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매주 월요일 휴관한다. 박물관 입장료는 유료지만 특별전 관람은 무료다.

전시 및 프로그램 문의는 미술관 술(063-286-0567), 해남공룡박물관(061-530-5949)으로 하면 된다.

/이만호 기자

'작은 불꽃, 그 빛이 닿는 곳' 전시

전북문화관광재단·미술공감채움, 롯데백화점 전주점서 개최

지역 작가들의 창작 활동과 작품을 일상 공간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가 롯데백화점 전주점에서 열린다.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지역 시각예술 작품을 공공기관과 기업 등 도민들이 쉽게 찾는 공간에 전시해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작가들의 작품 유통 기반을 넓히기 위해 '미술품 대여전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재단의 '2026 미술품 대여전시 지원사업'에 선정된 미술공감채움(대표 고보연)이 마련했다. '작은 불꽃, 그 빛이 닿는 곳'을 주제로 오는 10월 31일까지 롯데백화점 전주점 2층부터 4층까지 전시 공간에서 진행된다.

전시에는 모두 12명의 지역 작가가 참여한다. 문화예술교육과 멘토링 등을 통해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실천해 온 작가와 한 동안 창작 활동을 중단했다가 다시 작품 활동을 시작한 작가 등이 참여해 각자가 지켜온 창작의 의미를 작품에 담았다.

작품을 통해 삶의 치유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지역사회와 예술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특히 8월 27일에는 전시 공간을 함께 둘러보는 투어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오후 1시부터 전시 작품을 관람하고, 오후 1시 30분에는 롯데백화점 전주점 2층 카페 옆 홀

섬미·이남기 작가 작품 전시 공간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도슨트 프로그램이



그림이 진행된다.

참여자들은 작품을 감상하면서 작가와 작품에 대한 해설을 듣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고보연 미술공감채움 대표는 "예술은 소외된 곳을 비추고 단절된 사람들을 하나로 잇는 언어"라며 "이번 전시가 예술가와 지역사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예술을 통해 만나 서로의 경계를 허무는 따뜻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경운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지역 작가와 작품이 일상 공간에서 더 많은 도민과 만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예술가들의 활동 기반을 넓히고 누구나 일상에서 예술을 가까이 누릴 수 있는 문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시와 도슨트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술공감채움으로 문의하면 된다.

/오상근 기자

완주문화관광재단, '어린이 물놀이 공예술편터 시즌2' 성료

완주문화관광재단(이사장 유희태)은 지난 8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완주 어린이체육

관 일원에서 개최한 '2026 완주 공예오픈 시즌마켓-어린이 물놀이 공예술편터 시즌2'가 2,500



지난 8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완주 어린이체육관 일원에서 개최한 '2026 완주 공예오픈 시즌마켓-어린이 물놀이 공예술편터 시즌2'가 2,500여명의 방문객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여명의 방문객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7월 처음 선보인 어린이 물놀이 공예술편터의 호응을 바탕으로 운영 기간을 이틀로 확대했다. 첫날 약 1,200명, 둘째날 약 1,300명이 행사장을 찾으며 가족 단위 여름 문화프로그램으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행사장에는 이동식 풀장과 워터슬라이드를 갖춘 야외 물놀이존을 비롯해 텀블러 스트랩 만들기, 드림캐쳐 만들기 등 실내 공예체험과 에어바운스가 운영됐다. 물놀이와 공예를 한 공간에서 함께 즐길 수 있어 어린이 동반 가족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번 행사는 공예와 여름철 놀이 콘텐츠를 결합한 생활밀착형 프로그램으로, 공예를 일상에서 쉽고 친근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족 방문객을 완주 어린이체육관으로 유입해 지역 공공시설에 새로운 문화적 활력을 더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시벽천미술관, 벽천 나상목 화백 특별 기획전 개최

김제시벽천미술관은 오는 28일부터 내년 4월 4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벽천 나상목 화백의 특별 기획전 '시간을 건너온 스케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해외여행이 누구에게나 허락되지 않던 1979년, '문화 교류'의 사명을 띠고 세계를 순방했던 나상목 화백의 해외명소 스케치를 2026년의 시선으로 새롭게 재조명해 본다.

당시 한국의 웅장한 산수를 서양에 알린 화백이 귀국 전 짧은 시간 동안 보스턴의 오랜 항구,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 등 서구의 낯선 풍경을 자신의 화폭에 담아낸 뜻깊은 작품들을 선보인다.

관람객들은 단순한 풍경화 감상을 넘어, 반세기 전 미지의 세계를 마주했던 화가의 설렘과

경이로움을 함께 견고 공감하는 문화적 서사를 경험하게 된다.

지난 1980년 서울 진화랑에서 처음 대중에게 공개되었던 이 스케치들은, 서양의 이국적인 명소를 한국화의 승결로 기록했다는 점에서 한국 근현대 미술의 확장성을 보여주며 관람객에게 높은 지적 만족감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기획전시는 가장 한국적인 붓으로 가장 이국적인 풍경을 그려낸 벽천 화백의 1979년 발자취를 따라 걷는 특별한 여정"이라며, "시간을 건너온 스케치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잊고 있던 새로운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설렘을 다시금 발견하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북의 자연

고유생물의 서식지

고창 갯벌

고창갯벌은 곰소만에 넓게 형성되어 있는 갯벌로 세계 최고수준의 저서규조류 생물종을 보인다. 또한 황해 고유종인 범게의 최대 서식지로 유명하다.

고창갯벌은 약 194종의 저서규조류 서식하고 있으며, 이는 바지락과 동죽이 서식하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또한 고창갯벌은 100여 종, 20만 마리의 물새를 부양하고 있는데, 이중 IUCN 적색목록 2종을 포함하고 있으며, 멸종위기종(EN등급)인 황새의 국내 최대 월동지로 알려져 있다.

한편 전 세계 1종 1속만 존재하는 황해 고유종인 범게의 국내 최대 서식지이기도 하다.

고창갯벌에는 펄갯벌 위에 독립적으로 형성되는 사질 퇴적체인 셰니어(Chener)가 관찰된다.

셰니어는 자갈, 조립질 모래와 조개껍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후의 영향을 받아 육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셰니어는 펄갯벌에 둘러싸여 있으며, 바닷물에 잘 잠기지 않아 철새들의 동지와 휴식처의 역할을 수행한다.

출처: 유네스코 한국의 갯벌

전주매일 캠페인